

## 전남도-목포대-순천대, 국립의대 설립 공동협력

### 선언문 통해 의대 유치로 의료여건 개선·지역소멸 대응 강조

전남도는 7일 도청 귀빈실에서 국립 목포대·순천대와 함께 도민 의료여건 개선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공동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이날 공동 협력 선언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공동협력 선언문에 서명했다.

전남도와 목포대·순천대는 선언문을 통해 ▲전남도민의 의료여건 개선과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 타개에 앞장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양 대학 간 역량집중 및 상호협력 강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 반드시 포함토록 촉구 등 내용을 담아 공동협력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조만간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동 협력 선언'은 정부와 의료계에 보내 의대 설립의 절실함을 한목소리로 전달하고, 국립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지역 양대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에 국립의

대가 설립되도록 함께 역량을 집중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대학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공동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지사는 두 대학이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공동협력에 나선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의료현안 협의체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 의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반드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양 대학 간 협력방안이 구체화되길 바란다"며 "지역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보내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전남도는 7일 목포대·순천대와 함께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공동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왼쪽부터) 이병운 총장, 김영록 지사, 송하철 총장. /전남도 제공

## 광주시, 10월 4~7일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세계 대표 인권기구인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가 3년 연속 공동 주최기관

으로 참여한다. 올해 주제는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를 선정했다.

이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및 첨단 디지털 기술 확산 등으로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포럼에서 빈곤과 불평등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인권이슈와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들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새롭게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차원의 전략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공식포스터는 위, 아래로 펼쳐진 도시 이미지를 통해 공존하는 도시의 의미를 담았으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치와 지향점을 따뜻

한 색상으로 표현했다.

광주시는 전체 주제와 관련해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기 위해 공모를 통해 ▲여성 ▲장애 ▲가족 ▲이주민 ▲청년 ▲지속가능 개발목표 ▲어린이·청소년 ▲거주권 등 8개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포럼 전까지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시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계림동 쪽방촌 현장 간담회, 청년과 사회적 이슈 토론회, 이주민 무료 진료 활동 등 주제회의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윤건열 민주인권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다양한 국제도시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시 간 연대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며 "세계인권도시포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 현대자동차,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협약

현대자동차는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환경부, SK E&S,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통근버스 등을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재훈 현대차 사장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추형욱 SK E&S 사장,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서울시는 2026년까지 300여대의 공항버스를 포함해 대중교통 1천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버스 전용 충전소 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현대차는 2026년까지 공항버스를 포함해 서울시가 수소버스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상·고상 수소버스를 적기에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SK E&S는 안정적인 액화수소 생산과 공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티맵모빌리티는 경유 공항버스 등을 수소버스로 조기에 전환하는 데 협력한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은 "버스, 트럭 등 수소 상용차 개발을 중단없이 추진해 다양한 라인업을 시장에 출시하는 한편, 수소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을 구축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을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재훈 사장은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수소버스 전환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서 수소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수소버스는 충전시간이 30분 이내로 전기버스보다 더 짧고, 주행 거리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약 600km 이상으로 대중교통 버스로

적합하다.

일반 시내버스뿐 아니라 공항버스 등 장거리 노선 운행 버스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데도 유리하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시에 수소버스를 시내버스로 보급해왔으며, 연내에는 고상 수소버스를 공항버스로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반 시내버스뿐 아니라 경유버스로 장거리 운행 중인 공항버스 등을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향후에도 수소버스의 적기 공급을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노력할 계획이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1일 500kg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 등 국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 [행정공고]'감사원 주관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원·교육부 합동 감사' 관련 제보 안내

성과관리팀 | 2023-05-22 | 170

- 제 목 : '감사원 주관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원·교육부 합동 감사' 관련 제보 안내
- 감사대상 : 조선대학교
- 감사기간 : '23. 5. 30.(화) ~ 6. 2.(금), 6. 7.(수) ~ 6. 8.(목)[6일간, 토·일요일 제외]
- 감사내용 : 대학 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
- 제보내용
  - 감사 대상 기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연구비 등) 등과 관련된 비위 및 불편 사항 등
- 제보방법
  - 교육부 홈페이지 부패공익센터
  - 교육부 감사관 이메일(moegamsa@korea.kr)

국토의 싹틔줄  
생강을 살립시다